

남원시 ‘만인의총’ 정신 깃든 남원읍성 복원

문화재청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선정

국비 등 93억 들여 2025년까지…역사교육장 활용

만인의총이 모셔졌다는 이유 등으로 일제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남원읍성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된다.

복원 대상은 사적 제298호인 남원읍성 북문과 성벽 등이다. 북문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읍성을 지키던 1만 의사가 최후의 혈전을 벌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줬던 곳

이기도 하다.

일제는 350여년이 지난 1935년 이곳의 문과 성곽을 헐어내고 남원역을 만들어 순국 현장과 만인의총을 플랫폼으로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가장 먼저 2019년 까지 북문 복원을 마치고로 하고 최근 한

국철도공사로부터 방치된 남원역 터를 매입하기로 했다.

복원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성문과 성벽, 문루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1995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고증을 마쳤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 주위에 파놓았던 연못인 해자, 성벽과 해자 사이에 설치하는 낮은 옹달리인 양마장도 복원한다. 성벽은 388m를 만든다.

현재 보존된 212m를 포함해 최종적으

로 600m 길이의 성벽이 원형을 되찾게 된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65억원을 지원받는다. 전체 사업비는 93억 원이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30일 “1만 의사의 호국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남원읍성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원형대로 복원해 살아 숨 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박우정 고창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국가생태관광지역 육성 등

가치경영부문 대상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역동적으로 군정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고창군은 “지난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박우정 군수가 가치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혁신과 창조적 마인드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경영 선진화를 이뤄낸 리더의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해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고창 자연마당 조성, 국가생태관광지역 육성



등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또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과 인류 무형유산 판소리과 농악의 진흥과 육성

에 노력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한국인의 본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의 뚜렷한 목표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박종군 장도장 ‘정유년 새로운 희망’ 특별전

광양장도전수교육관

오늘부터 5일간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박종군 장도장(粧刀匠)은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장도장의 2017 정유년(丁酉年), 새로운 희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는 2016년 포스코에서 지원한 ‘세대를 잇는 작업-이음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 등에 전시했던 작품 ‘백옥금장환금상감보검’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박 장도장은 ““백옥금장환금상감보검”은 조선왕조실록 내용 중 ‘연산군 11년

(1505) 5월에 신하에게 옥으로 칼자루를 만들고 금으로 장식해 오색술을 달아서 만들라고 전교하였다’는 보검 제작지시에 관한 기록에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도의 칼날은 포스코에서 지원한 강철을 사용하고 공통적 요소로 칼몸에 별자리를 새겨 인간의 삶에 대한 불멸 염원의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 광양 장도의 전통 열처리 기법을 이용해 칼날의 강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했다.

박 장도장은 “아들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닭의 해를 맞아 준비한 이번 특별전과 함께 시민 모두가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전 관련 문의는 광양장도전수교육관(061-762-4853)으로 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AI 확산 더이상은 안돼”

고창 564개 마을 일제 소독

고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564개 전 마을 안길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서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35여만 마리가 머물러 있으며,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9일 신림면 풍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단 한건의 추가발생이 없도록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가속도’

오는 2022년 개원 목표

토지매입·행정절차 돌입

군산시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은 전북개발공사와 부지매입 수탁자 계약을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다음달부터 군산월명체육관 건너편 부지 9만8850㎡의 매입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립 부지는 사유지 33필지와 도로 6필지다. 이중 사유지 매입가는 감정가 등을 종합하면 총 16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부동산 집계기인내다 토지주 대부분이 지역주민이어서 사유지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도시 소유자의 절반 이상,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해 연내에 용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는 부지매입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결정,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주체인 전북대병원도 기본계획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병원 건립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지매입과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내년에는 본 공사에 들어갈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대병원과 협력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개원 목표인 군산전북대병원은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이며 500병상,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등을 갖춘 종합 의료시설로 건립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장항 잇는 동백대교 개통 또 연기

내년 말로…현재 공정률 87%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 해망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연결하는 동백대교의 개통 시기가 애초 목표를 훌쩍 넘겨 내년 말로 미뤄졌다.

교각이 세워질 자리의 송전선로를 이설하고 교각과 램프 등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개통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해망동에서 장항읍을 잇는 총 길이 3.85km를 폭 20m,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동백대교를 건설하고 있다. 군산에서 장항 방향으로 인도도 개설한다.

동백대교는 애초 2013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일부 설계변경과 예산확보는 물론 새만금 지중선로 이설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늦어져 지난해 말 개통 계획마저 무산됐다. 현재 공정률도 87%에 불

과하다.

다행히 최대 결림이던 교각이 세워질 곳을 지나는 154kV 새만금 지중선로 이설 작업이 2월에 완료될 전망이어서 공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교각 및 받침대, 옹벽, 상판, 램프 설치 등의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최대 결림돌인 지중선로 이설 문제가 해결됐지만, 교각과 램프 공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익산국도청과 협의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22억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군 북이면 입암산 밑 한옥마을 등 적합 6만㎡ 교통중요 9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비치! 전망중요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요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인왕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순창군 구림면 강가에 경치중요 임야 다용도 1195㎡ 8천만원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월물리 1488㎡ 찻집·가든 적합 1억9천
- 담양군 천변리 생산복지 2968㎡ 차량통행 원활할 7억2천
- 담양 풍산면 대추리 2939㎡ 비닐하우스 4동있음 1억4천
- 홍창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풍산면 가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접 7255㎡ 전원주택 아파트 등 적합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 광산구 고숙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중요 7억
- 강진군 용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상가건물

- 강원도 춘천시 지하17층 지상12층 건물중요 지하 2층중 1244㎡(337평) 감정 31억선 담보용 적합, 은행 6억5천 매도 1억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0층건물 대지 2618㎡ 건평 14468㎡ 경락물건 법상가 147억 은행 20억 요양병원 적합 65억
- 원산동 운전각부근 대지 160㎡ 4층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화정동 광주은행앞 대지 235㎡ 2층건물 상가신축 적합 7억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업버림
- 운림동 중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월동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월동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원산동 대지 197㎡ 건평 257㎡ 인접과 투룸 등 5 개조합 3억
- 원산동 보라아파트 부근 대지 96㎡ 주택 113㎡ 은행5천 매도 1억37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투자가치 좋습니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평당 5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